

[전여대협] 99년 여름농활 여농반 제안서

99년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활동 제안서 (1차)

수신: 각급 단위에서 농활에서 여농반을 준비하는 주체

발신: 5기 전여대협 중앙

내용: 99년 여름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한 제안서

용도: 여농반 활동내용을 공유와 시급히 주체 조직화용

문서구성

0. 들어가며

1. 여성농민반 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
2. 여성농민반 활동
3. 사전답사
4. 알아두면 좋은것-여성농민을 만날 때 이렇게 합시다.

0. 들어가며

10년이 넘게 매년 진행되어온 농활이지만 예년하고는 달리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10만명 조직화로 진행될 99년 여름농활은 9박 10일 모든 일정이 다시금 논의되고 고민되어 꼼꼼하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은 부패·비리정권 김대중 정권을 몰아내어 민주정부 수립하고 90년대 연방조국을 건설할 주체인 민중들을 선두에서 조직화하는데 있어 소중한 민중연대의 장이기에 그러할 것입니다.

하기에 이번 농활을 준비하는데 있어 "그냥 예전에 했던대로 준비해서 가야지?" 하는 사고로 임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99년 여름농활의 혁신! 바로 각계층별 만남의 공간 분반활동의 치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급 단위에서 여농반이나 아동반이 나뉘대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활발한데 그것도 그나마 여학단위가 없는 단위는 내용성있게 준비되어 지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조국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우리 농민들속에서 언제나 절반은 여성농민들이 그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절반에 대한 연대의 고민은 여학단위의 뒤편으로만 떠넘겨져 왔고 그것도 여학단위가 없는 단위는 여성농민에 대한 고민은 거의 포기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언제나 민중을 요구하는 투쟁의 공간에 여성은 묵묵히 그공간을 메꾸어 왔습니다.

민중연대의 소중한 공간이 될 99년 여름농활!

단위별로 꼼꼼한 여성농민반 준비로 99년 여름을 빛내입시다.

1. 여성농민반 활동을 왜 해야만 하는가?

여성 농민이란 이 땅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산의 주인, 생명의 어머니로 바로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검은 얼굴, 고목 같은 손을 지닌 우리의 친근한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십니다. 농활 기간 중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은 여성 농민입니다. 농활중 학생들에게 가장 호의적이며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신경써 주시고 학생들에게 반찬 한가지라도 갖다 주시려는 모습, 피곤한 몸을 누이고 싶은 간절한 생각에도 학생들 생각에 분반 활동에 적극적으로시던 모습. 바로 우리 여성 농민의 모습입니다.

여성 농민들은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의 소외뿐 아니라 농민 정책 속에서도, 여성들 사이에서조차 불평등을 느끼는 계층입니다. 이제 정부가 우리 나라의 식량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며 통일

을 대비하는 농업정책을 세우고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 한다면 농업의 절반을 담보하고 있는 여성 농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고민과 인력 개발을 위한 구체적 의지와 정책 실현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또한, 앞으로 농업, 농촌 기본법이 제정과 더불어 여성 농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역시 절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또다시, 가장 먼저 축소되고 유보되어야 하는 것이 농업 부분이라면 이제 국가의 미래는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성 농민이 희망과 의욕을 갖지 못하는 농촌과 농업은 결코 지속될 수 없음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허리 두드릴 틈도 없이 고조선 시대이나 21세기인 지금이나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는, 죽을때 까지 제대로 대접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일만 하는 소중한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짧은 농활 기간이지만 그분들의 삶을 피부로 느끼고 어머니들의 개선될 삶을 보장하기 위해(여성농민회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여성농민의 목소리를 모아내어야 한다.) 소리내지 못했던 여성농민의 현실을 구체화된 소리로 만들어 내기위해 여성농민반의 활동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지는 것이다.

2. 여성농민반 활동 (5가지)

1) 여농반 주체를 반드시 세웁시다.

한가지의 일을 하는데 있어 주체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일의 절반이상은 한거나 같습니다.

그처럼 주체를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단위별로 보면 아동반과 여농반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여농반 준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여농반은 청장년반처럼 이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반쪽의 여성에 대한 담보를 하든 것입니다. 이땅을 다스리는데 있어 주변인이 아닌 한주체를 의·조직화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하기에 반드시 여농반 주체는 들러리식으로 아무나 세우거나 다른 분반과 겸해 주체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학생운동에 있어 농활은 여학생들을 단련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며 여학생 운동에 있어 대중조직화의 중요한 공간임을 다시 한번 각인합시다.

-중앙주체: 농활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이 아니기에 농활의 주체는 여농과 논의속에서 농활전반을 기획하고 단위 교양과 지도, 총화를 할 수 있는 지도력과 책임성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위주체: 단위에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풀어가려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에 그주체를 선정하여 책임지고 튼튼히 단련시키자.

-단위에 여성문제 고민하는 일꾼이 없는 경우: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교양을 진행하고 남학생밖에 없는 경우는 남학생이라도 세우도록 하자. 단순히 아주머니들과 잘놀이 재미있다고 주체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앙의 교양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2) 사전답사를 반드시 진행합시다.

이는 학교별로 답사를 진행할 때 대부분 여농반을 준비하는 주체, 정확히 말해 단위 여학생들은 여농반 준비를 위한 사전답사를 하지 않는 단위가 많습니다. 학생회가 한해살이라 하더라도 농활과 같은 민중연대의 장은 지속적인 연대를 많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전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농활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없다보니 작년에 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올해 다시 반복된다던지 굳이나 마을별 정확한 여성농민의 준비정도에 대한 파악이 되지않다보니 과도하게 준비하거나 부족하게 준비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위별로 많은 준비를 하고도 성과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사전답사를 1회이상 진행하여 치밀하고 꼼꼼한 여농반 준비를 합시다.

3) 우천시나 활발적인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는것도 잊지 맙시다.

4) 중간평가를 진행합시다.

대부분 시작할때의 마음가지고 끝나고나면 평가를 반드시 진행하자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해 농활의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럴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하여 농활을 진행하는 중간에 평가를 반드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는 마지막 평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간평가를 통해서 부족분도 채우고 교류할 부분은 교류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 전체 농활 분반활동과 관련한 교육내용을 잡을 때 반드시 성폭력 관련 교양·학습을 진행합시다.

올해는 농활 화점인정에 따라 충분히 의식화 되지않은 학우들도 농활을 수행할 것입니다. 성폭력의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몇건이 다양하게 농활기간에 성폭력사건으로 총화되어 해결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것이며 가해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활을 수행하는 일꾼들의 교양, 농활을 들어가서 진행될 다양한 분반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농활기간 생활수칙에도 강조해서 일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합시다. 지역별로 성폭력 상담소와 논의를 진행하시고 성폭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이후 제출될 전여대협-전여농 농활자료집에 실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성폭력의 문제를 민감하게 대응하여 부각시키면 농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질수 있으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전답사 활동]

1. 농활지역 여성농민 조직상황에 따른 답사 방법

1) 해당군, 마을에 여성농민 조직에서 주체가 꾸려져 있는 경우어 경우에는 마을답사활동에서부터 여성농민 주체와 함께 할수 있도록 하며 마을 주체들까지 참여한 군여동학연추를 추진해 보도록 하자. 우선 각 조직의 주체들이 만나서 회의 체계를 만들고 이 속에서 농활 전반의 것을 공유하고 계획한다.

2) 여성농민 조직이 있어도 조직적 준비를 못하고 있거나 여성농민 활동가 개인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성농민활동가를 적극적으로 만나며 조언을 구하고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농활의 계획과 목표를 같이 수립하는 속에서 여성농민운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3) 여성농민 조직이나 활동가가 전혀 없는 경우

이런 경우 분반활동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거나 진행이 잘 되더라도 여농의 강화로 귀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아주 작은 목표로서 여성농민반을 함R(준비하고 이끌어 나갈 아주머니 한분이라도 세워 내어 이후 후속작업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하고 중요한 것은 꼭 도여성농민활동가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조언받고 이후 총화까지 도여농으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새로운 마을로 바뀌거나 작년도 이월을 받지 못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 군여농에 도움을 청해 들어가는 마을 상황을 듣고 반드시 농활 가기전 방문을 하도록 한다. 군여농이 없는 경우 도여농이나 전여농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

2. 답사내용

전년도 여성농민반을 담당했던 주체로부터 파악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반드시 알고 매년 같은 내용의 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자. 그러기 위해서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서화 시키고 변한 상황을 점검하여 여성농민반 활동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면 좋다. 필히 다

음대 농활주체가 원점에서 시작하지 않도록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발전을 가져올수 있음을 명심하자.

1) 여성농민에 대한 기본사항

마을 여성농민의 숫자, 연령대, 문맹율, 자녀수
여성농민의 주요 노동, 일거리 일반적인 일과표
잘모이는그룹, 연령별 모임, 잘모이는 장소

2) 부녀회

부녀회 모임유무, 회수, 모임내용, 모이는 연령대
부녀회장의 성향, 영향력
그외 부녀회에서 영향력있는 사람, 성향

3) 여성농민회 활동여부

여성농민 교육이나 농민교육 실시 여부
투쟁 참여 유무
전체적인 의식 성향

4) 여성농민반 활동

이전 농활경험 유무, /여성농민반 활동 유무/
마을 여성농민들에게 부각되는 주요문제에 대해
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분반활동에 대해 논의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분반활동이 가능한 시간대와 장소
(참고)알아두면 좋은 내용-여성농민을 만날때는 이렇게 합시다

1) 근로 활동 공간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근로 활동의 작업 태도는 분반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농민 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성실히 일하고 일만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을 전체의 분위기나 의식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 얼굴을 익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아주머니는 확실히 분반 활동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작업을 할 때에는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민요 등을 부르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무거운 주제보다는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 이야기, 남편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등으로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진행의 미를 발휘합니다.

2) 여성농민반 활동시 유의 사항

☛여성 농민을 대상화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건 이렇게 되어야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나 강의의 대화할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모르는 조급성과 여성 농민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학생들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모순들을 더 명확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자식이 얼마에게 응석을 부리듯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자.

이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OO는 참 개구쟁이지요? 학교 생활을 잘하지 모르겠네요?" 로부터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이나 "낮에 보

니깐 아저씨가 참 호탕해 보이시더라구요, 근데 집안일도 잘 도와주시나요?" 로부터 가사 분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게 한다든지 등등으로 따분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한 분도 빠짐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분반활동 준비는 깐살하게 그러나 일정은 융통성있게 합시다.

여성농민의 현실이라든지 각 마을 부녀회나 각 마을 상황을 미리 조사하고 준비를 깐살히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준비과정에서 아무리 완벽한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도 학생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성농민반 활동입니다. 우리가 일정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한번의 일정이 어긋났다고 해서 다음 일정을 방기하지는 맙시다. 어떤 활동이든 의연하고 융통성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후 여농반때 정신대 문제해결관련 서명운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대한 제안서는 다음주중으로 다시 총화하겠습니다. 자료집도 6월 17일 전후로 통신으로 총화하겠습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기 전/여/대/협**